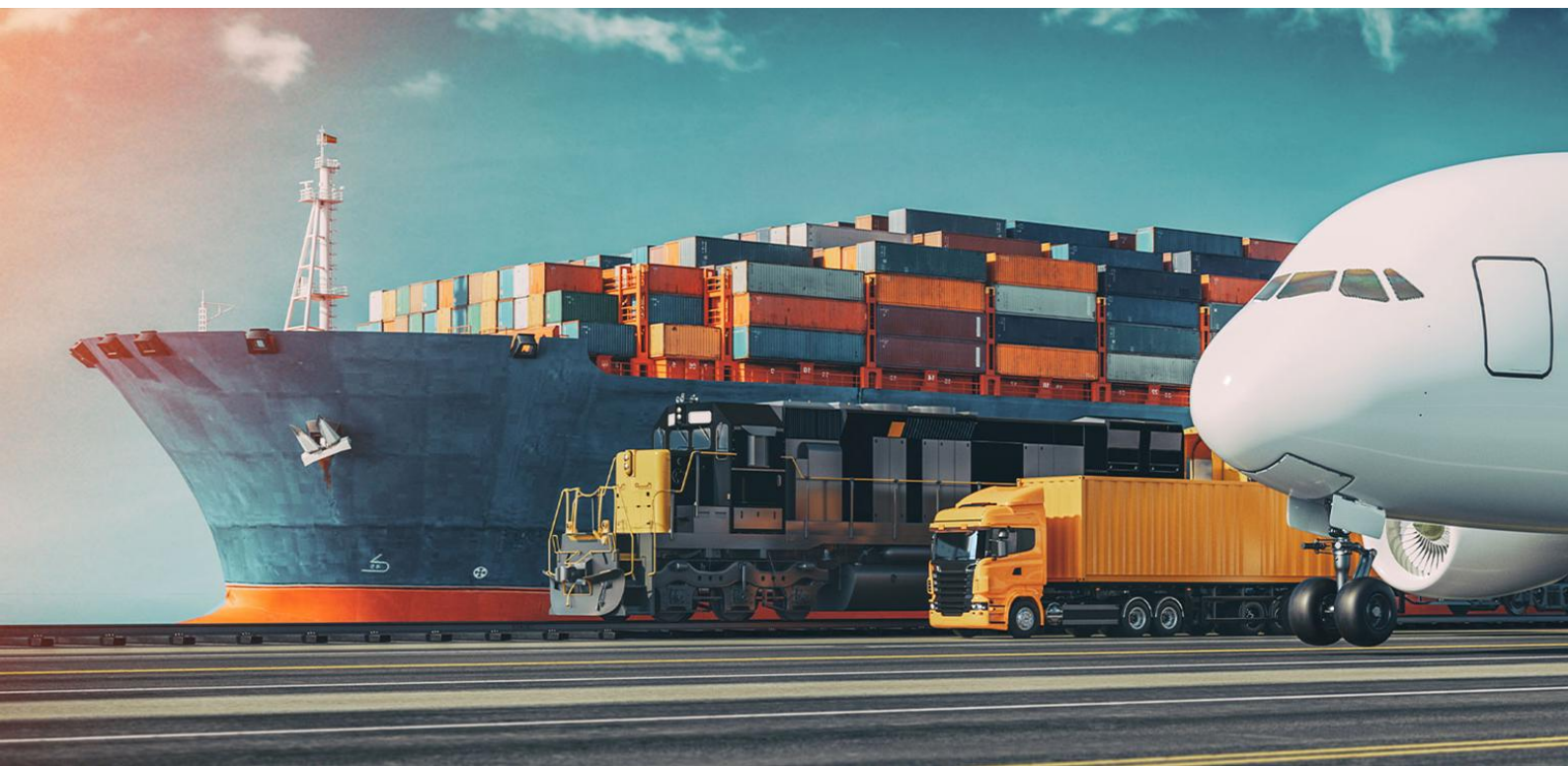


MAX LOGISTICS NEWSLETTER



2025년 10월호

SEOUL, KOREA

바운드별 스케줄

미주 (BSA/LUZ/GCR) 및 중남미

- 미주 LAX/ORD/JFK 및 주요 노선 지역(ATL/DFW) BUP 프로그램을 진행
- KJ, OZ 스케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BUP 작업 및 안정적인 Allocations 기반한 스페이스 제공
- OAL 직항을 포함한 다양한 T/S OAL SVC (WS/UA/DL등)구간의 경쟁력 있는 운임과 서비스 지원
- 주요 미주 지역 외 캐나다(YYZ/YVR) 및 중남미 (MEX/GRU/BOG/SCL 외) 상품 서비스

콘솔 및 BUP 스케줄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JFK	KJ587	2230/0125+1 1550/1845 2230/0125+1	D2 D5 D7	DIRECT
	OZ222	0900/1015	DAILY	DIRECT
	DL158 DL196	1040/1000 2005/1330	DAILY	DTW T/S SEA-LAX T/S
YYZ / YVR	WS087	2045/1610	D146	YYC T/S
LAX	KJ284/KJ286 KJ282	2330/1850	DAILY	DIRECT
	OZ202	1245/0800	DAILY	DIRECT
	DL172	1940/1615	DAILY	SLC T/S
SFO	OZ212	2055/1530	DAILY	DIRECT
	DL172	1940/1615	DAILY	SLC T/S
SEA	OZ272	1820/1230	D12467	DIRECT
DFW	KJ244 / KJ242	2300/0435+1 0840/1405	D16 D35	DIRECT
	DL170 DL158 DL172	1840/1655 1015/1025 1940/1615	DAILY	MSP-ATL T/S DTW T/S SLC T/S, D257
ORD	KJ244 KJ242/KJ248	2300/0005+1 0840/0930 0130/0220 0100/0200	D16 D345 D6 D1	DIRECT
	DL158 DL170	1015/1025 1840/1655	DAILY	DTW T/S MSP T/S
ATL	KJ248	0100/0715 0840/1445 0130/0735	D1 D4 D6	DIRECT
	DL188 DL026 DL170	1625/1710 1850/1935 1840/1655	DAILY	DIRECT DIRECT MSP T/S

SEOUL, KOREA

바운드별 스케줄

미주 (BSA/LUZ/GCR) 및 중남미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CUT-OFF TIME	실무자	
LAX	KJ284/KJ286 KJ282	2330/1830	D123456 D7	DIRECT	작업일 17시	안범준 매니저 (070-5069-9441) 조대호 매니저 (070-5096-9342)	
	OZ202	1245/0800	DAILY	DIRECT	전일 17시		
	YP101	1320/0720	DAILY	DIRECT	전일 17시		
	UA806	1245/0620	DAILY	SFO T/S (TRUCKING)			
SFO	OZ212	2050/1530	DAILY	DIRECT	당일 15시		
	DL196	2005/1430	DAILY	SEA T/S			
ORD	KJ244 KJ242 KJ248	2300/2255 0800/0745 2300/2255	DAILY	DIRECT	작업일 17시		강준환 매니저 (070-5096-9869) 왕유진 매니저 (070-5096-9886)
	DL158	0935/0840		DAILY	DTW T/S		
ATL	KJ248	2300/0405+1	D357	DIRECT	작업일 17시		
	DL188	1750/1725	DAILY	DIRECT	당일 오전		
DFW	KJ244 KJ242	2300/0335+1 0800/1225	D1 D357	DIRECT	작업일 17시		
	DL026	1925/1850	DAILY	ATL T/S	당일 오전		
JFK	KJ587	2230/0020+1	D2	DIRECT	작업일 17시	양병규 매니저 (070-5096-9473)	
	OZ222	0940/1055	DAILY	DIRECT	전일 18시		
	DL196	2005/1430	DAILY	SEA-LAX T/S	당일 15시		
YYZ/YVR	WS087	2045/1610	D146	YYC T/S	전일 17시		

메일: usa@maxlogis.com / 네이트온: maxkorea airexp@nate.com / TEL: 02-3144-2289

US 향 주요 PAX 항공사 선적 진행으로 인한 주요 직항 및 T/S 노선 개발 중 (OZ, WS 집중 판매중)

항공사	출발지	항공편	기종	Frequency	ETD/ETA	Cut Off	Remark
OZ	ICN-JFK	OZ222	A350	Daily	09:40-10:55	17:00	11, AUG~
	ICN-LAX	OZ202	A350	Daily	14:40-10:20	17:00	01, SEP~
WS	ICN-YYC	WS087	B787-9	D1,2,4,5,6	21:40-16:58	14:00	19, MAY~12, OCT
				D1,4,5,6,7		14:00	13, OCT~19, OCT
DL	ICN-SLC	DL 172	A350-900	Daily	19:40-16:15	13:40	13. JUN~
	ICN-DTW	DL 158	A350-900	Daily	09:35-08:40	17:00	
	ICN-ATL	DL 188	A350-900	Daily	17:50-17:25	12:00	
	ICN-ATL	DL 026	A350-900	Daily	19:25-19:05	13:00	
	ICN-MSP	DL 170	A350-900	Daily	19:30-16:50	13:00	
	ICN-SEA	DL 196	A350-900	Daily	20:05-13:30	14:00	
UA	ICN-SFO	UA 892	B777	Daily	18:00-11:35	12:00	
		UA 806	B787	Daily	11:30-06:15	17:00	
YP	ICN-LAX	YP 101	B787-9	Daily	12:45-08:20	17:00	
	ICN-LAX	YP 103	B787-9	D1,3,5,7	22:05-17:20	14:00	
	ICN-EWR	YP 131	B787-9	Daily	21:30-22:30	14:00	
	ICN-SFO	YP 111	B787-9	D1,3,5,6,7	18:20-13:00	12:00	
	ICN-HNL	YP 151	B787-9	D1,3,5,6	22:10-11:50	14:00	2, JUL~
AC	ICN-YUL	AC 068	B787-8	D2,3,5,7	18:00-18:50	12:00	
	ICN-YYZ	AC 062	B787-9	Daily	18:20-11:20	12:00	
	ICN-YVR	AC 064	B787-9	Daily	16:55-09:55	12:00	

SEOUL, KOREA

바운드별 스케줄

유럽 (BSA/LUZ/GCR) 및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 유럽 주요 지역(LHR/FRA/VIE/MXP) 콘솔 및 BUP 프로그램 진행
- KJ, OZ 스케줄 및 주요 OAL(QR/TK/LH/CV)을 통한 유럽 및 서남아시아를 포함한 이원 구간 지원
- FRA/VIE에 대한 안정적 스페이스 및 경쟁력 있는 운임 지원 및 LHR/STN의 안정적인 스페이스 운영
- 중앙아시아 (ALA/TAS/IST) 지역에 대하여 OZ 및 OAL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서비스 지원

콘솔 및 BUP 스케줄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FRA	FRTR	KJ795/KJ775 KJ793	22:30-10:00+1 22:00-11:05+1	화 금 / 수 토 목 일	DIRECT
LHR	FRTR	KJ793	22:30-22:00+1	목 일	STN T/S
VIE	FRTR	KJ795/ KJ775 / KJ789 / KJ797	23:00-06:30+1 23:00-06:30+1	화 금 수 토 / 목 일	DIRECT
MXP	FRTR	KJ789KJZ797	22:30-10:05+1 22:30-10:05+1	목 일	DIRECT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OAL	QR	QR8985 QR8981	0135-0610 0155/0610	수 금 일 토	DOH T/S *T/TIME: 2~4DAYS
	LH	LH8385 LH8383	02:25-08:45 00:55-07:15	금 일 월	FRA T/S *T/TIME: 2~4DAYS
	TK	TK6545 TK0091 TK6545	14:55-20:25 23:20-04:50+1 11:25-17:40	목 금 일	IST T/S *T/TIME: 2~4DAYS
	CV, C8	CV7153 CV9015 CV7156	04:00-12:35 03:15-17:25 04:00-12:35	목 토 일	ICN-LUX *T/TIME: 2~4DAYS
		C8 7111 C8 7113	05:20-17:20 12:25-00:25+1	월 수	ICN-MXP *T/TIME: 2~4DAYS
	WS	WS087	20:45-15:51	월 목 토	ICN-YYC *T/TIME: 2~4DAYS
	SK	SK988	23:45-05:25+1	월 수 금 토	ICN-CPH *T/TIME: 3~4DAYS
	OZ	OZ511	11:50- 19:10	화 목 금 토 일	ICN-BCN *T/TIME: 1DAY

SEOUL, KOREA

바운드별 스케줄

유럽 (BSA/LUZ/GCR) 및 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CUT-OFF TIME	실무자
FRA	FRTR	KJ795/KJ775 KJ793	22:30-10:00+1 22:00-11:05+1	화 금 / 수 토 목 일	DIRECT	작업일 17시	박주상 수석 (070-5096-9385) 임진슬 매니저 (070-5096-0003) 이성빈 매니저 (070-5096-9341)
LHR	FRTR	KJ793	22:30-22:00+1	목 일	STN T/S	작업일 17시	
VIE	FRTR	KJ795 KJ775 / KJ789 KJ797	23:00-06:30+1 23:00-06:30+1	화 금 수 토 / 목 일	DIRECT	작업일 17시	
MPX	FRTR	KJ789 KJ797	23:00-10:10+1 23:00-10:10+1	목 일	DIRECT	작업일 17시	

메일 : europe@maxlogis.com / 네이트온 : max_export1@nate.com / TEL : 02-3144-2289

SK Soft Block 진행 중

Schedule

FLT	ROUTE	FREQ	ETD	ETA	CUT-OFF
SK 988 (A350)	ICN-CPH	D 1, 3, 5, 6 (till 2025. 10. 26)	23:45	05:25+1	19:45

주요 Destination

Destination	RFS	AIRING	Direct	Remark
CPH			V	Wide Body, ELI 가능
BLL, ARN, GOT, OSL, MMX BGO, SVG, FRA, HAM, RIX, TLL, VNO, PRG	V	V		T/T 2- 3 days AIRING 시 500kg 미만 carton only
HEL, AMS, LHR, DUB, BER NCE, CDG, FCO, ATH, GDN, KEF, BCN, AGP, ALC, PMI, LPA		V		Bulk 기 (500 kg 미만 carton only) ELI 불가, RFS 불가

SEOUL, KOREA

바운드별 스케줄

아시아(BSA/LUZ/GCR) 및 중일지역

- 주요 아시아 노선 (HAN/HKG/PVG) 콘솔 및 BUP 프로그램 운영
- HKG 화물 별 특가 제공 및 TPE 행 특송 화물에 대한 안정적인 연말 스페이스 지원 가능
- KJ, OZ PVG 및 HKG 그리고 HAN BUP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운임 및 서비스 제공
- KJ, OZ 직항 이외 OAL 주요 운항 노선 프로모션으로 다양한 이원 구간 노선 서비스 구축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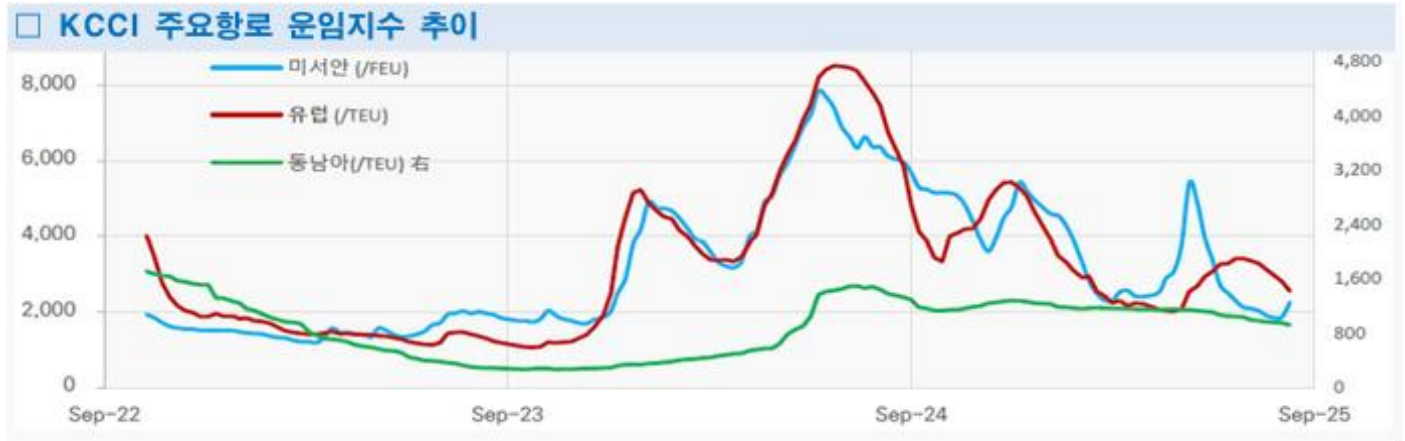
콘솔 및 BUP 스케줄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PVG	KJ0987 KJ0947 KJ0957 KJ0937	☐ 1250-1405 ☐ 0050-0205 / 0115-0230 ☐ 0050-0205 / 0115-0230 ☐ 0050-0205 / 1340-1455 ☐ 1050-1205 ☐ , ☐ 0115-0230	DAILY	DIRECT
	OZ0361 OZ0363	0900-1005 1045-1145		
HKG	KJ973/971(73F)	2310-0200+1	DAILY	DIRECT
	KJ967,969(74F)	1050-1340	D2~7	DIRECT
HAN	KJ513,515 (73F)	2320-0150+1	DAILY	DIRECT
	KJ887,933,951,389(74F)	0040-0310	DAILY	DIRECT
NRT/KIX	NRT / KJ0194, KJ0198 KIX / KJ0192, KJ0182	NRT ☐ , ☐ , ☐ , ☐ , ☐ 1540-1820 ☐ 1040-1320 KIX ☐ - ☐ 1630-1825	D2-D7	DIRECT
	KIX OZ0112 OZ0114 OZ0118	0755-0940 1405-1550 ☐ ☐ ☐ 1605-1750	DAILY	DIRECT
TPE	OZ711 OZ713	1015-1150 1420-1550	DAILY	DIRECT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CUT-OFF TIME	실무자
PVG	KJ0987 KJ0947	일자별 상이 0050-0205	DAILY	DIRECT	작업일 17시	곽지연 매니저 (070-5096-0004)
HKG	OZ745	DAILY / 1925-2240	DAILY	DIRECT	작업일 17시	김정은 매니저 (070-5096-9384) 한효정 매니저 (070-5096-9366) 윤현빈 매니저 (070-5096-9893)
	OZ967/OZ969	화,수,토,일 / 일자별 상이	화,수,토,일	DIRECT		
	OZ951/OZ953	화,수,토 / 2345-0735+1	화,수,토	HAN병합노선		
HAN	OZ733	DAILY / 일자별 상이	DAILY	DIRECT	작업일 17시	
DEST	FLIGHT	ETD/ETA	FREQUENCY	ROUTE	CUT-OFF TIME	실무자
NRT	KJ0194 KJ0198	화 1040-1320 수-일 1540-1820	화-일	DIRECT	전일 17시	지민정 매니저 (070-5096-9340)
TPE	OZ711 OZ713	DAILY 1015-1150 1420-1550	DAILY	DIRECT	전일 17시	김지희 매니저 (070-5096-9470)

BUSAN, KOREA

해상 물류 동향



More pain for US importers as more metals are hit by tariffs

“미국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적용 품목 확대... 자동차·화학 산업 위축 우려”

- 미국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232조 50% 관세 대상 파생제품 품목을 확대함. 이는 기존 관세에 추가 적용되며, 현재 운송 중인 물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됨
- [물류업계 입장] (Seko Logistics) 제련·주조 국가에 대한 정확한 신고 및 증빙 필요 (DSV) CBP 관세 품목* 숙지 필요 및 구리 제품 관세 부과 가능성 유의 (Transport Intelligence) 수출 의존도 높은 독일에 큰 타격 예상. 특히, 자동차·화학 중심 산업 구조 및 해 상운송 수요 위축 우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관세 부과 대상 수입 품목 (The Loadstar 2025/8/19)

China's Economy Needs Help, But Will It Come?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및 디플레이션 압력 가중... 미국과 협상 불확실성으로 경기 부양제약”

-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연초 기대와 달리 성장 둔화 및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음. 최근 산업생산, 소매 판매 등 주요 지표의 예상 대비 부진 및 실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경기 부양에 소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블룸버그는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을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꼽으며, 경기 부양 부재 시, 경기 둔화, 실업 증가, 소비 부진의 악순환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봄
- *7월 산업생산(전년비 +5.7%), 소매판매(+3.7%) 모두 예상 성장률 하회. 도시 실업률, 미국보다 높은 5.2% 기록 (Bloomberg 2025/8/19)

Signs of a slight upturn on container routes to the US “Vespucci, 북미항 단기 수요 증가 전망...

- ▲미·중 관세 유예 ▲중국경절 ▲USTR 규제 기인” Vespucci Maritime, ▲미·중 관세 유예 ▲중국 국경절 연휴 ▲USTR 중국 규제 등 다수 요인에 따른 단기 물동량 증가를 전망함.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6~9월 전통적 성수기에 선적이 보류되었던 물량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단기 수요 급증에 따라 5~6월 운임 급등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설명함 한편, USTR 규제 회피를 위해 선사들이 9월부터 운영 네트워크를 조정할 것으로 내다보며, 이에 따른 노선별 가용 공급 변동성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함 (Shippingwatch 2025/8/18)

BUSAN, KOREA

무역 동향 - 관세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확대 (Section 232)

- 8월 14일 트럼프 행정부, 407개 HTS 코드(파생 제품 포함)를 철강·알루미늄 관세 품목에 추가발표
→ 8월 18일부터 시행
- 미국 교역 상대국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50% 관세 부과(단, 영국은 25%)
- 철강·알루미늄 함유 비율에만 관세 부과, 기타 성분은 기존 상호주의·별도관세 유지
- 주요영향품목: 소비재, 가전·산업재, 운송·물류 관련 제품, 화학제품, 에너지 및 인프라 관련 제품
- 자동차전체에는 25%, 철강·알루미늄 함유분에는 50%, 별도의 Section 232 적용되는 자동차 관세가 적용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
- 추가 품목 중 124개는 철강과 알루미늄 모두 해당 → 수입 업체는 반드시 해당 금속 명시 필요
- 수입 업체는 공급업체 데이터 (철강/알루미늄 중량, 관세가치, 제련국가 등) 확보필요

기타무역관련 주요동향

- 인도: 8월 27일부터 기존 25% 보복관세 외에 추가 25% 관세 → 인도산 일부 상품 총 50% 관세 부담
- De minimis 규정: 8월 29일 만료 예정 → \$800 이하 저가품도 원산지에 따라 관세 부과
- 미중 무역휴전: 8월 11일 행정명령에 따라 5월 14일 시행된 임시협정이 11월 10일까지 연장
- 신규관세계획: 트럼프대통령, 반도체·제약 제품에 최대 100% 관세 부과 가능성 언급 (시행시점미정)
- 수정된 상호주의 관세: 8월 7일 부터 시행, 트럼프 7월 31일 연설기준 대상국에 10% 기본관세부과 (중국·캐나다 제외)
- 캐나다 펜타닐 관세: 25% → 35%로 인상 (USMCA 준수 기업과 이전 적재계약은 면제)



2025년 10월호

HONG KONG, CHINA

홍콩 지점소식

2025년 9월 공휴일

- 10월 1일: National Day
- 10월 7일: The day following the Chinese Mid-Autumn Festival
- 10월 29일: Chung Yeung Festival

물류 동향

항공

Hong Kong Air Cargo LJG GSSA(CARGO GENERAL SALES AND SERVICE AGENT) Program

- HX LJG-HKG 서비스는 2025년 9월 9일부터 시작 예정 LJG GSSA (화물 일반 판매 및 서비스 대리점) 모집 中
- LJG-HKG (지점 간 및 환승 화물 포함)
- Period : 9 September 2025 – 25 October 2025
Frequency : D246, ETD/XIY 09:05, ETA/HKG 11:55
Aircraft type : A320
Space : Available bulk space

Hong Kong Air Cargo 2025년 9월부터 다카 노선 주 2회 증편

- 홍콩 에어카고는 2025년 9월 2일부터 홍콩(HKG)과 다카(DAC) 간 운항편을 주 2회로
- Flight Schedule (from 2 September 2025, local time):

Hong Kong (HKG) → Dhaka (DAC)

RH6651 | Tuesday 18:50 → 20:50

RH6651 | Saturday 10:20 → 12:20

Dhaka (DAC) → Hong Kong (HKG)

RH6652 | Tuesday 22:20 → 04:15+1

RH6652 | Saturday 13:50 → 19:45



HONG KONG, CHINA

물류 동향

해상

미국 세관, 중국 연계 선박에 대한 새로운 항만 수수료 부과 준비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판결에 따라 중국과 연계된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수수료 제도를 징수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중국 소유/운영사와 중국 건조 선박 모두에 적용되며 미납 시 운항 금지 조치가 임박하여 화물 운항 및 항만 통관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 보잉 최종 정책에 따라 중국 소유 또는 운영 선박은 순톤당 50달러부터 시작하여 2028년 4월까지 톤당 140달러로 인상됩니다. 중국 건조 선박을 운항하는 비중국 국적 선박은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습니다. 톤당 18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120달러에서 시작하여 톤당 33달러 또는 컨테이너당 250달러까지 인상되며, 둘 중 더 높은 수수료가 적용
- 수수료는 항해(또는 순환) 단위로 부과되며, 선박당 연간 5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첫 기항지에서만 적용됩니다. 단거리 해상 운송, 규모 기준 미만의 선박, 미국 소유 선박, 밸러스트 항해, 특수 수출 운송업체는 예외

HSBC,는 미국 항만 수수료 인상으로 COSCO와 OOCL, 21억 달러 타격 예상

- HSBC의 최신 계산에 따르면, 중국 관련 톤수를 겨냥한 미국의 항만 수수료 제도가 시행되면 COSCO와 홍콩 상장 자회사 OOCL은 2026년에 총 21억 달러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
- HSBC는 COSCO가 내년에 15억 달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며, 이는 2026년 컨센서스 매출의 5.3%에 해당, OOCL은 6억 5,400만 달러(예상 매출의 7.1%)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며. 수수료는 1만 TEU 선박 기준 FEU당 600달러로, 최근 상하이-미국 서해안 현물 운임의 4분의 1 이상입니다.



TOKYO, JAPAN

도쿄 지점소식

2025년 10월 공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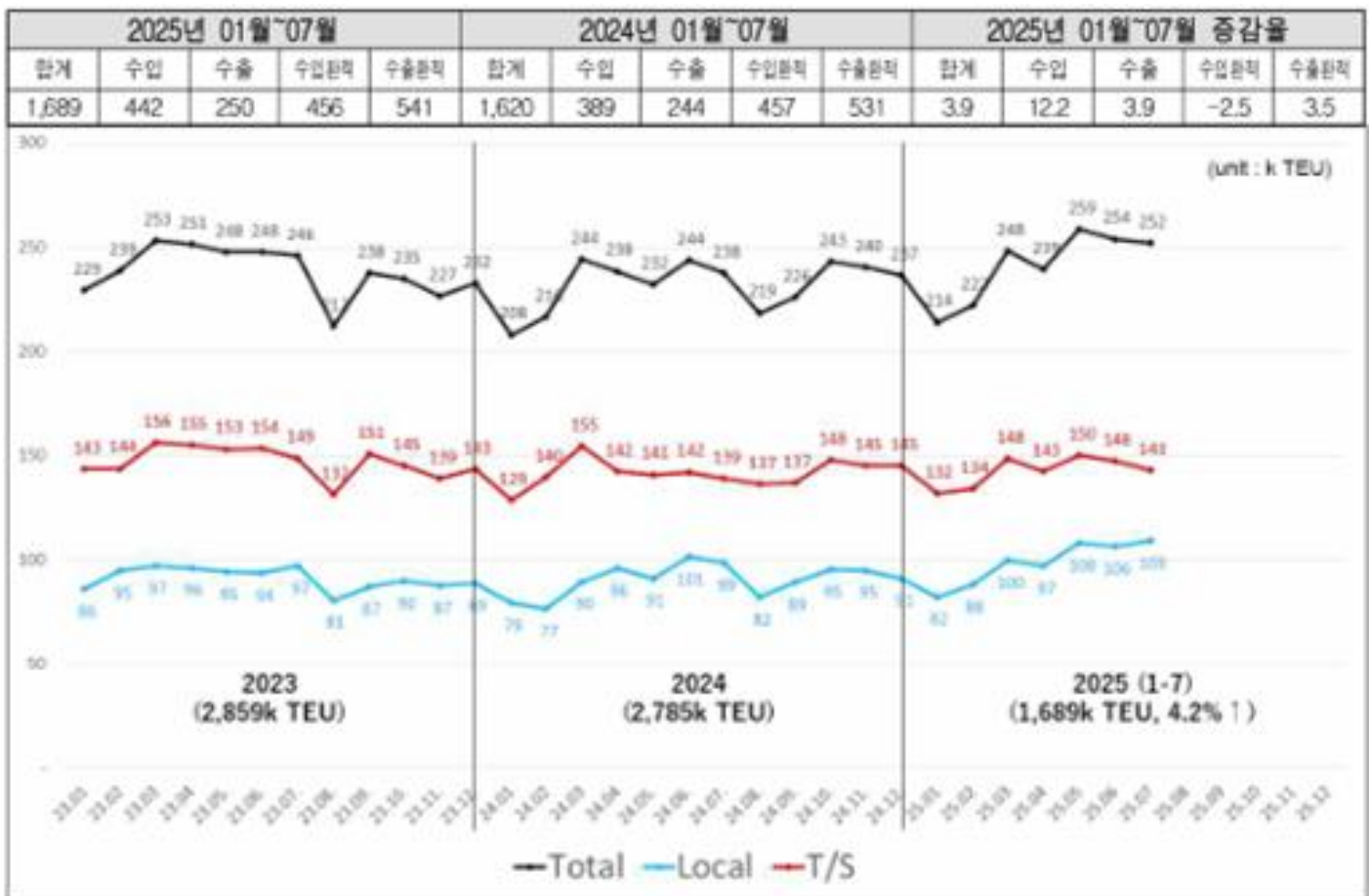
- 10월 13일(월): 스포츠의 날

물류 동향

해상

부산-일본 물동량: 1,689천TEU 처리 (4.2% ↑)

- 수출입 692천TEU (9.3% ↑)
- 환적 997천TEU (1.0% ↑)



TOKYO, JAPAN

물류 동향

전국항만노동조합, 2025년 운동방침 발표, 연말연시 임시 화물취급 “원칙적으로중단”

전국항만노동조합연맹(전국항만)이 2025년도 운행 방침안을 밝혔으며, 9.17일~18 아이치 현 도요하시에서 열리는 제18회 정기대회를 거쳐 정식으로 결정될 예정임

관심이 집중되는 연말연시 임시 화물취급에 대해서도 기본 원칙이 제시되었음

- 2001년 노사합의로 시작된 연말연시 임시 화물취급은 매년 항운 노사가 협의하며 계속되어 왔으나, 2024년 (2024년 12월 31일~2025년 1월 4일, 설날 제외)은 협의가 결렬되어 23년 만에 중단됨
- 일본항운협회는 “연말연시가 클로즈되면 결과적으로 선사의 일본 기항이 줄고 일본 패싱이 더욱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실시를 요청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연말연시 (예외) 하역

- 연말연시 특별 유급휴가 기간 (12월31일, 1월 2-4일) 동안, 설날(1월 1일)을 제외한 4일간 본선 작업과 이에 관련된 창고·물류 창고 작업을 실시하는 제도로 2001년 시작됨
- 2001년 일본항만은 아시아항만의 부상으로 인한 경쟁심화 등 도전에 직면하자 항운노사는 협상을 통해 일요일 하역 및 연말연시 하역 실시를 합의했고, 이를 통해 일본항만의 안정화와 364일 연중 무휴 개방을 실현할 수 있었음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노조는 “2025년도 ‘정월 연휴’는 기본적으로 쉬며, 불가피하게 화물을 취급해야 하는 선박·화물’의 정의를 ‘라이프라인’으로 규정해 엄격화하되, 그 경우에도 컨테이너선은 하역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

- 연말연시 임시 화물취급을 두고 노사는 이미 7월부터 협의를 시작하였음
- 노조는 이는 선사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 시간부족으로 협의 없이 실행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노조는 2025년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외적으로 화물 취급을 실시할 경우에는 성과금·할 증임금을 포함해 출근자에게 500% 지급”을 요구하며 협의할 방침임

한편, 항만운송업계의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외국인 연수제도의 활용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노조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기본 입장을 정리하였음

- 기본입장을 노동협정으로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해당 노조와의 합의 및 노조 가입 승인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임

TOKYO, JAPAN

물류 동향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한 전국항만의 기본입장

- 기존 항만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무기고용(장래에도 항만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형태)일 것
- 노동조건은 산업별 제도(임금수준, 근로시간 등)를 최소기준으로 하며, 해당직장 고용조건과 동등할 것
- 안전과 집단작업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일본어 습득과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인권 존중 범위 내에서의 인물 평가로 취업 요건을 충족했음이 확인될 것

또한 항만노동자 부족과 임금 인상을 배경으로 가격 전가의 촉진과 원가확보가 과제가 되고있는 가운데 항운 노사로서 ‘적정거래 캠페인’의 구체화를 위한 대응을 추진하기로 함

- 특히 2025년 춘투에서 화주 18개단체에 제안을 했으나, 다시금 이 움직임을 노사 공동과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함
- 국교성은 「항만 노동자 부족대책 등 액션플랜 2025」에서 “약 40%의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운임 요금을 충분히 수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정 운임 수취를 위한 노력 강화를 명기했음
- 또한 “컨테이너 하역 요금의 적정화도 시야에 넣고 있으며, 요율 진척을 살펴보고, 필요시 노사와 행정의 협의를 거쳐 적정화 대응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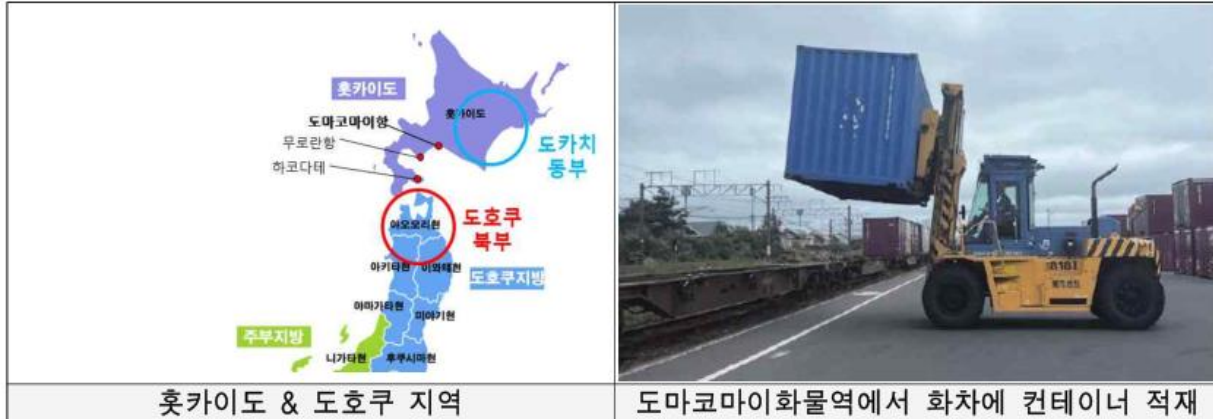
홋카이도 최초, 해상 컨테이너 철도 수송 실증 개시 (도마코마이~하코다테 구간)

홋카이도 거점 물류업체 나라사키스탁스가 26일, 도마코마이~하코다테 간 해상 컨테이너를 철도수송 하는 실증실험을 개시하였으며, 홋카이도 내 해상‘컨’이 철도로 수송된 것은 최초임

- 하코다테권에서 외항 ‘컨’항로가 개설된 곳은 항만은 도마코마이항이지만, 왕복 500km의 트럭 수송이 필요, 드라이버 부족과 탈탄소화 대응을 목적으로 실증이 추진됨
- 지리적 요인으로 도호쿠 북부나 도카이 동부 등지에서도 동일한 과제를 안고 있어, 동사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철도 수송을 검토해 나갈 방침임

TOKYO, JAPAN

물류 동향



홋카이도 내에서는 외항 정기 컨테이너 항로가 취항하는 항만이 감소 추세에 있으며, 올 3월에는 무로란항의 한국 항로가 휴항됨

- 이에 따라, 대체 항만이 된 도마코마이항에서의 육상 수송거리가 장거리화 되는 상황
- 또한, 트럭 운전자의 고령화가 전국 평균 대비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 속 나라사키스탁스는 트럭 장거리 수송의 대체 방안을 모색 중이며, 그 일환으로 이번 철도 수송 실증을 결정함

이번 실험은 도마코마이시의 2025년도 「도마코마이 이노베이션 활성화 사업」에 채택됨

-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해 과제해결·신규사업 창출·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200만 엔을 지원하는 제도
- 나라사키스탁스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팀을 꾸려 기획부터 사업 신청까지 직접 담당하며 JR 화물 등의 협력기관으로 참여

수송 방식은 ①전 구간 트레일러 수송, ②도마코마이 화물역~하코다테 화물역 구간은 철도 수송, 나머지는 트레일러 수송으로 동일 시점에 두 가지 패턴으로 실험을 진행함

- 또한 먼저 공 컨테이너를 통해 예비 수송시험 진행 후 안전성, 확실성, 정시성 등 기본 조건 확인한 뒤 적 컨테이너를 사용한 본 수송 시험 진행 예정임

8월 26일에는 예비 수송 시험이 실시되었으며, 홋카이도 내에서 해상 컨테이너가 철도로 운송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임

- 다만, 몇 가지 과제가 발견되어 대책을 마련한 뒤, 빠르면 9월 본 수송 시험을 계획 중이며, 이후에는 3차 시험까지 진행할 방침임
- 본 실증에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 경제성, 리드타임, 품질 등 수송 서비스, 환경적 관점에서 철도 수송을 평가하고, 새로운 수송 방식으로서 철도 수송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임

해상 컨테이너의 철도 수송이 확립되면, △2024년 문제 해소에 기여, △환경 친화적·지속 가능한 물류 실현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나라사키스탁스는 지리적 특성상 장거리 트럭 수송 과제를 가진 홋카이도 북부·중부 지역에서도 철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방침임

TOKYO, JAPAN

물류 동향

항공

엑스포 종료 타이밍 영향

- 엑스포(Expo 2025)가 10월 13일 종료되므로, 엑스포 관련 물량의 피크가 10~11월 사이에 몰릴 가능성이 큼
- 엑스포 종료 이후 일부 장비나 전시 자재의 회수·이동 수요도 있음
- 항만·공항·내륙 운송 경로에 병목 발생 가능성

나고야 허브 가동 시작 및 영향

- 나고야 허브가 10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해당 권역의 택배 흐름 재편 가능
- 허브 가동 초기에는 조정 비용이나 시스템 안정화 이슈가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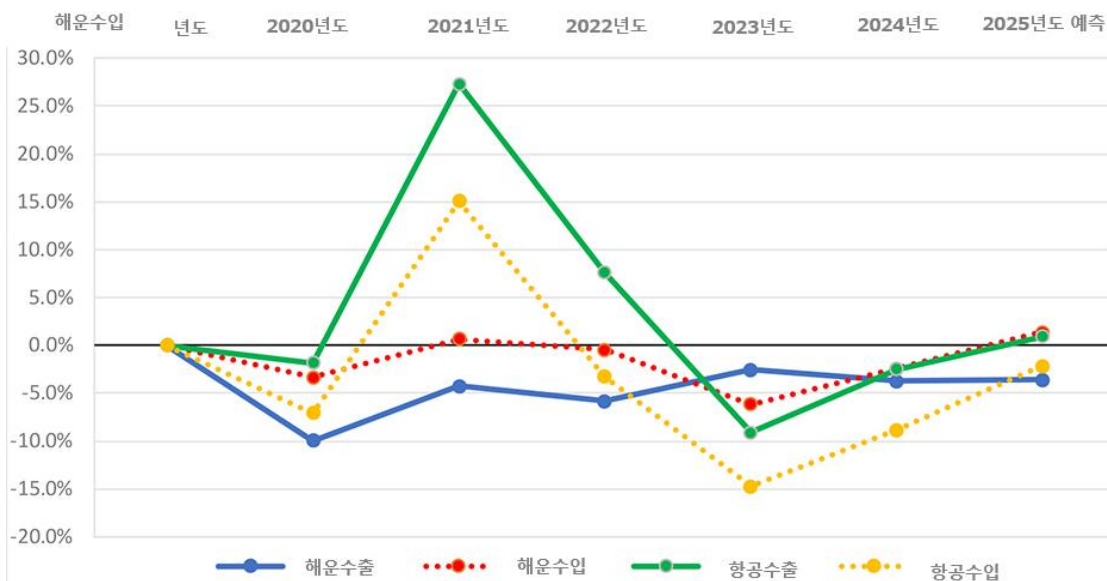
계절 수요 변화 & 연말 준비 착수

- 10월부터 연말까지의 쇼핑 성수기 대비 재고 보충, 운송 예약 경쟁 등이 시작될 가능성
- 특히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연말 이벤트(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를 대비해 물류 숙련을 시작할 것

자동화 시스템 용량 확장 / 테스트 확대

- 로봇, 자동 분류 시스템, AI 기반 예측 시스템 등이 실제 운영 규모로 확대 검증되는 시점이 될 수 있음
- 특히 배송 허브나 지역 거점 창고 중심으로 자동화 설비 증설 움직임 가능

코로나 이전(2019년도) 수준과의 비교에서는, 항공 수출은 전회 전망에 이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습니다(100.9%)



TOKYO, JAPAN

물류 동향

항공

일본 국내 항공 화물의 경우, 상반기에는 대형 택배 사업자들이 화물 전용편을 운항시키는 효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음이 보고서에 기술되어 있음

- 다만 하반기에는 증가세 둔화가 예상됨
- 연간 기준 증가율은 약 5.9% 증가가 예측됨

일본발/착 국제 화물 운송량의 예측

단위 천TON,()안은 전년도 동기간 대비증감률(%)

	2023年度	2024年度			2025年度		
		上期	下期	計	上期	下期	計
合 計 Total	2,058.7 (△19.7)	1,034.7 (2.7)	1,132.1 (7.7)	2,166.8 (5.2)	1,100.3 (6.3)	1,195.2 (5.6)	2,295.5 (5.9)
輸 出 Export	936.7 (△21.6)	472.9 (2.5)	517.4 (8.9)	990.4 (5.7)	506.0 (7.0)	538.7 (4.1)	1,044.7 (5.5)
TC-1 Trans-Pacific line	193.7 (△24.8)	94.2 (△ 0.1)	105.1 (5.8)	199.3 (2.9)	102.5 (8.9)	111.3 (5.8)	213.8 (7.3)
TC-2 European line	165.5 (△13.7)	88.2 (3.4)	84.4 (5.2)	172.6 (4.3)	92.6 (5.0)	86.5 (2.4)	179.1 (3.8)
TC-3 Asian line	577.6 (△22.5)	290.6 (3.1)	327.9 (10.9)	618.5 (7.1)	310.9 (7.0)	340.9 (4.0)	651.8 (5.4)
輸 入 Import	1,122.0 (△18.0)	561.8 (2.9)	614.7 (6.7)	1,176.4 (4.8)	594.3 (5.8)	656.5 (6.8)	1,250.9 (6.3)

SHANGHAI, CHINA

상해 지점소식

2025년 10월 공휴일

- 10월 1일 (수) ~ 10월 8일 (수) : 중국 국경절 휴무
- 10월 11일 (토) : 대체 근무일

긴급 연락처

- 항공 : 채향자부장 +86 155 0214 9791
- 해상 : 공현주부장 +86 188 2377 8753

물류 동향

항공

- 중국발 유럽 항공 시황은 10월 성수기의 시작과 신제품 출시 시즌에 맞추어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미국 항공은 성수기 시장에도 불구하고, 전통 산업의 공급망 조정으로 수요 증가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
- 아시아/태평양/중동/인도 항공은 전반적으로 보합세이며 운임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임

해상

- 글로벌 해운운임이 1198.21로 1년 9개월만에 SCFI가 1100대 하락 진입
- 미주 동안 및 서안 노선은 전주대비 750 달러 하락, 유럽 및 지중해 노선은 전주대비 100달러 하락하였으며, 중동 노선 또한 300달러 하락
- SCFI 급락은 국경절 황금 연휴 탓으로, 화물 운송 수요가 선제적으로 해소된 영향으로 분석

물류동향

- 10월 1일부터 중국내 수출기업의 세금 신고 및 수출방식에 대한 실명제도가 강화될 예정이며 실제 화주가 '마이딴' (수출대행)을 통한 통관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미국은 2025년 10월 14일부터 중국 소유/운영 건조된 선박에 대한 항만 사용료를 부과 할 예정으로, 중국 해운업체의 비용 증가 발생, 미국 수출입 물류비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경제동향

- 성장 둔화 우려 지속 : 2025년 8월 중국의 공장 생산과 소매판매가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확대에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CHONGQING, CHINA

충칭 지점소식

- 안정적인 반도체, 전자제품 등 수입/수출 및 국내운송 업무제공
- 반도체 생산공장 창고업무 외주 받아 고객과 화물 특성에 따라 Sorting 및 보관 Service 제공
- 충칭지점 주요 핸들링 지역: CKG / CTU / CSX / KMG / XIY

충칭시 수출입 물류 현황

2025년 1-9월, 충칭시의 대외무역 수출입이 강한 성과를 보였으며 총액은 5080.9억 위안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고, 이는 전국 전체 증가율보다 7.8%포인트 높은 수치로 내륙 개방 고지의 강한 활력을 보여주었다.

이 성장은 충칭이 "일대일로" 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제 물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전통 산업 업그레이드와 신형 산업 가속화를 추진한 데 기인한다.

무역 방식별로 보면 일반 무역과 보세 물류의 증가가 특히 두드러졌는데, 1-8월 일반 무역 수출입은 2123.2억 위안으로 19.9% 증가했고, 보세 물류 수출입은 1210.4억 위안으로 무려 28.4% 증가해 충칭의 무역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2025년 1-9월 충칭시 주요 무역 파트너 수출입 현황

무역 파트너	수출입액(억 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아세안	884	23.5
"일대일로" 공동 건설 국가	2305.9	9.9
상하이 협력 회원국	423.8	11.3

국제 항공 운송 물류 전문 분석

2025년 9월, 충칭 국제 항공 물류가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9월 14일, 중국 COSCO 항공 물류 사업부가 "충칭-밀라노" 정기 항공편 전세기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했으며, 첫 번째 항공편이 충칭 장베이 국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이 노선은 전용 화물기로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및 일요일에 4편의 왕복 항공편이 운항됩니다.

이 밀도 높고 규칙적인 항공편 일정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분야에 큰 혜택을 주며, 알리익스프레스를 대표로 하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관련 판매자들은 더 유연한 발송 시간 선택을 얻을 수 있어, 과거 항공 운송 시간 불안정, 일정 조정 어려움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행 확실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CHONGQING, CHINA

충청시 수출입 물류 현황

육상 운송 물류 전문 분석

2025년 9월 4일, "충청 시육-아세안 크로스보더 전용선"이 정식 개통되어 충청의 육로 크로스보더 물류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표시했다.

이 전용선은 충청 시육 종합 보세구를 화물 집산지로 삼아 광시(廣西) 핑샹 종합 보세구(우의관 항구), 광시 동싱 2교 항구 및 베트남 관련 화물장, 물류단지 등 국경 자원과 연동하여 "일표제, 일비제, 원스톱"의 전 과정 물류 서비스 모델을 혁신적으로 시행해 화물 집합, 운송, 대리, 통관, 세관 통과, 창고 보관, 보세, 배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용선은 수출은 기계 전자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은 농산물 부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양방향 무역 물류 노선을 형성해 항구 통관 및 전 과정 물류의 지능화, 효율화, 편리화를 실현했다.

해상 운송 물류 전문 분석

충청은 내륙에 위치해 있지만 철도-해상 연계 운송, 장강-해상 연계 운송 등의 방식을 통해 해운은 여전히 충청의 수출입 무역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1~8월 동안 충청 보세 물류의 수출입 규모는 1210.4억 위안으로 28.4% 증가했는데, 이 부분의 증가는 크게 충청 해운 관련 물류 시스템의 최적화 덕분이다.

충청은 서부 육해 신통로를 통해 화물을 광시 북부만 등 해안 항구로 운송한 후 전 세계로 중계하여 효율적이고 편리한 남향 해상 운송 대로를 형성했다.

CHONGQING, CHINA

항공 수출 일정

연월	DEPT	항공사	FLY TIME		DIRECT	Route		MON			TUE			WED			THU			FRI			SAT			SUN			PALLET CARGO (TM)	SPACE	SIZE PER PACKAGE	SS WGT PER PM
			(PIK)	기종		기종	IT/S	출발지	도착지	FLY NO.	ETD	ETA	FLY NO.	ETD	ETA	FLY NO.	ETD	ETA	FLY NO.	ETD	ETA	FLY NO.	ETD	ETA	FLY NO.	ETD	ETA	FLY NO.				
2025.10	OKG	OZ354	P	321	D	OKG	ICN	OZ354	CANCEL	CANCEL	OZ354	CANCEL	CANCEL	OZ354	CANCEL	CANCEL	OZ354	CANCEL	CANCEL	OZ354	CANCEL	CANCEL	OZ354	CANCEL	CANCEL	OZ354	CANCEL	CANCEL	Y	300KG	1.30*1.20*1.00	1500KG
	TFU	OZ324	P	321	D	TFU	ICN	OZ324	00:30	05:10			OZ324	00:30	05:10			OZ324	00:30	05:10			OZ324	00:30	05:10			Y	300KG	1.30*1.20*1.00	1500KG	
	OKG	CA639	P	8738	D	OKG	ICN	CA639	08:30	13:00	CA639	08:30	13:00	CA639	08:30	13:00	CA639	08:30	13:00	CA639	08:30	13:00	CA639	08:30	13:00	CA639	08:30	13:00	N	1000KG	1.0*1.50*1.50	500KG
	CTU	KR12	C	8737	D	CTU	ICN						KR12	03:35	08:30			KR12	03:35	08:30	KR12	03:35	08:30	KR12	03:35	08:30	Y	1-2T	1.2*1.0*1.5M	1000KG		
	TFU	313973	P	8320	D	TFU	ICN				313973	09:15	13:30			313973	09:15	13:30			313973	09:15	13:30				Y	300KG	0.80*1.80*1.6M	1000KG		
	NY	KE812	P	8330	D	NY	ICN	KE812	12:55	16:45	KE812	12:55	16:45	KE812	12:55	16:45	KE812	12:55	16:45	KE812	12:55	16:45	KE812	12:55	16:45	KE812	12:55	16:45	Y	500KG	1.0*1.8*1.5M	800KG
		KE8328	C	8747F							KE8328	03:15	09:25			KE8328	03:15	09:25			KE8328	03:15	09:25					1-2T	1.2*1.0*1.5M	1000KG		
	NY	CF301	C	8737F	D	NY	ICN			CF301	16:00	19:00			CF301	16:00	19:00	CF301	16:00	19:00							Y	1-2T	1.0*1.55*1.1M	1000KG		
	OKG	O 9998	C	747F	T	OKG	TPE						O 9998	05:00	09:00			O 9998	05:00	09:00								1-2T	1.2*1.0*1.5M	1000KG		
	TPE	CM660	P	333	T	TPE	ICN	CM660	07:40	11:15	CM660	07:40	11:15	CM660	07:40	11:15	CM660	07:40	11:15	CM660	07:40	11:15	CM660	07:40	11:15	CM660	07:40	11:15	Y	500KG	1.0*1.8*1.5M	800KG
		CM662	P	333				CM662	16:00	19:35	CM662	16:00	19:35	CM662	16:00	19:35	CM662	16:00	19:35	CM662	16:00	19:35	CM662	16:00	19:35	CM662	16:00	19:35				
	OKG	BR0678	C	8778	T	OKG	TPE						BR0678	02:10	05:15			BR0678			CANCEL	CANCEL						1-2T	1.2*1.0*1.5M	1000KG		
	TPE	BR0160	P	789				BR0160/78L	15:15	18:45	BR0160/78L	15:15	18:45	BR0160/77W	15:15	18:45	BR0160	15:15	18:45	BR0160/77W	15:15	18:45	BR0160	15:15	18:45	BR0160/77W	15:15	18:45	Y	500KG	1.0*1.8*1.5M	800KG
		BR0170	P	333				BR0170	07:30	11:00	BR0170/32L	07:30	11:00	BR0170	07:30	11:00	BR0170/32L	07:30	11:00	BR0170	07:30	11:00	BR0170/32L	07:30	11:00	BR0170	07:30	11:00				
	OKG	CK3261	C	747									CK326L	01:30	03:30													1-2T	1.2*1.0*1.5M	1000KG		
		CM53	C	747	T	OKG	HNG				CM53	02:50	05:25										CM53	02:25	05:00							
		CM45	P	333				CM45/32Q	12:00	14:30	CM45/32Q	17:25	19:55	CM45/32Q	17:25	19:55	CM45	12:00	14:30	CM45	17:25	19:55	CM45	17:25	19:55	CM45/32Q	17:25	19:55		500KG	1.0*1.8*1.5M	800KG
		CM46	P	333				CM46	16:50	21:15	CM46	16:50	21:15	CM46	16:50	21:15	CM46	16:50	21:15	CM46	16:50	21:15	CM46	16:50	21:15	CM46	16:50	21:15	Y	300KG	1.0*1.8*1.5M	800KG
		CM48	P	333				CM48	14:05	18:35	CM48	14:05	18:35	CM48	14:05	18:35	CM48	14:05	18:35	CM48	14:05	18:35	CM48	14:05	18:35	CM48	14:05	18:35		300KG	1.0*1.8*1.5M	800KG
		CM40	P	773				CM40	09:20	13:55	CM40	09:20	13:55	CM40	09:20	13:55	CM40	09:20	13:55	CM40	09:20	13:55	CM40	09:20	13:55	CM40	09:20	13:55		300KG	1.0*1.8*1.5M	800KG
		CM434	P	32Q				CM434	07:55	12:40	CM434	07:55	12:40	CM434	07:55	12:40	CM434	07:55	12:40	CM434	07:55	12:40	CM434	07:55	12:40	CM434	07:55	12:40		300KG	1.0*1.8*1.5M	800KG
		LD128	P	33T							LD128	03:25	07:45	LD128	03:25	07:45	LD128	03:25	07:45	LD128	03:25	07:45	LD128	04:10	08:40	LD128	04:10	08:40		300KG	1.0*1.8*1.5M	800KG
		CM36	C	747				CM36	11:55	20:30				CM36	11:55	20:30			CM36	11:55	20:30							1-2T	1.2*1.0*1.5M	1000KG		
	OKG	PM6423	P	8320	D	OKG	HNG				PM6423	CANCEL	CANCEL				PM6423	18:45	20:05				PM6423	CANCEL	CANCEL			Y	300KG	0.80*1.80*1.5M	800KG	
	OKG	HT3861	C	737F	D	OKG	HNG	HT386L	09:10	10:10				HT386L	18:50	19:50	HT386L	09:10	10:10				HT386L	09:10	10:10			Y	3-4T	1.2*1.0*1.5M	1000KG	
		CK3261	C	747									CK326L	01:30	03:30																	
	OKG	CM53	C	747	T	OKG	HNG				CM53	02:50	05:25										CM53	02:25	05:00			1-2T	1.2*1.0*1.5M	1000KG		
		CM45	P	333				CM45	12:00	14:30	CM45/32Q	17:25	19:55	CM45/32Q	17:25	19:55	CM45	12:00	14:30	CM45	17:25	19:55	CM45	17:25	19:55	CM45/32Q	17:25	19:55		500KG	1.0*1.8*1.5M	800KG
		CM43	P	32Q				CM43	16:55	18:05	CM43	16:55	18:05	CM43	16:55	18:05	CM43	16:55	18:05				CM43	16:55	18:05	CM43	16:55	18:05	Y			
		CM41	P	32Q				CM41	08:50	10:05				CM41	08:50	10:05	CM41	08:50	10:05										300KG	1.0*1.8*1.5M	800KG	
		CM3049	C	747													CM3049	16:55	18:00													
		CM3243	C	747													CM3243	16:05	17:00													

QINGDAO, CHINA

칭다오 지점소식

2025년 10월 공휴일

- 국경절(国庆节)
10월 1일 ~ 10월 7일 (7일 연휴)
실제 휴일: 10월 1일~3일(법정 공휴일)
주말 및 대체 공휴일로 7일 연휴 구성
- 추석(中秋节)
10월 6일 ~ 10월 8일(음력 8월 15일)로, 국경절 연휴와 겹칩니다

물류 동향

중국 물류 데이터

중국 관세총국이 9월 8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전년 동기 대비 8개월간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29.57조 위안으로 3.5%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과 ASEAN 간의 무역 규모는 4.93조 위안으로 9.7% 증가했으며, 중국 전체 대외무역에서 16.7%를 차지했습니다.

중국과 EU 간의 무역 규모는 3.88조 위안으로 4.3% 증가했으며, 13.1%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규모는 2.73조 위안으로 13.5% 감소했으며, 중국 전체 대외무역에서 9.2%를 차지했습니다.

LA항 9월과 10월 화물량 감소 전망

미국 서부 항구인 로스앤젤레스항(LA)의 8월 화물량은 95.8만 TEU로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트럼프 2.0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미국 서부 항구의 화물량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선주문 중단 또는 취소 등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항의 화물량은 7월에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소매업체와 제조업체들이 이미 크리스마스 판매용 상품을 미리 조달했기 때문에 9월과 10월에는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로스앤젤레스항 8월 컨테이너 처리량은 95.8만 TEU로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이 중 수입 중량 화물은 50.4만 TEU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으며, 수출 중량화물은 12.7만 TEU로 4.6% 증가했습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항을 통한 공컨테이너(空箱) 수량은 32.6만 TEU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했습니다.

2025년 전년동기대비 8개월 동안 로스앤젤레스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693.4만 TEU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GUANGZHOU, CHINA

물류 동향

항공 물류

주요 노선 개요

- KJ 화물기 / OZ 여객기 화물 운송 SPACE 유지
- KJ 대형화물 주3회, OZ DAILY 서비스 제공 가능

편명	출발지	출발 시간	도착지	도착시간	기종	ETD	RE
KJ0934	CAN	10:00	ICN	14:20	74F	D2,4	화물기
KJ0932	CAN	10:00	ICN	14:20	74F	D5	화물기
OZ0370	CAN	12:25	ICN	17:00	333	DAILY	여객기
OZ0356	CAN	01:15	ICN	05:45	321	DAILY	여객기

해운 물류

中 난사항 자동화터미널, 운영개시 3년만에 年처리량 400만 TEU 돌파 전망

중국 난사항 4기 자동화 터미널의 연간 처리량이 문을 연지 3년 만에 400만TEU를 넘어설 전망이다.

난사항 4기 터미널은 홍콩마카오광둥성 대만구에서 첫 번째로 운영 개시한 전 자동화터미널이다. 운영 개시 후 3년 간 취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3년간 누계 취급량이 800만TEU를 돌파했다.

운영 개시한 첫 해 2022년 컨테이너 취급량은 68만TEU에서 이듬해 150만TEU로 전년 대비 125% 급증했다. 2024년은 두 배 이상 증가한 320만TEU를 취급했고, 2025년에는 월간 및 분기별로 최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어 400만TEU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난사항 4기 터미널은 총 12개 항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3년 동안 누계 기항 선박은 1700척을 넘어섰다. 5G 이동통신 기반의 GPS와 스마트디스패치시스템을 활용해 선박 작업 효율이 매우 높다.

또한 난사항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전자제품, 콜드체인화물 등 부가가치가 높은 화물을 유치하고 있다.

GUANGZHOU, CHINA

물류 동향

해운 물류

2025년 중국 500대 기업 발표

9월 15일, 2024년 중국 500대 기업이 발표되었으며, 총 16개 공급망 및 물류 기업이 명단에 올랐으며, C&D 그룹, China Post, Zhongda가 상위 3위 안에 들었습니다.

9월 15일, 중국 500대 기업이 발표되었고, 2024년 기업 수입을 기준으로 명단에 올랐다.

SCM 및 물류 분야의 목록에 오른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C&D 그룹(28), 중국우정국(30), 중다(38), 샤먼 국제 무역(52), COSCO Shipping(53), 샤먼 상위(60), SF Express(92), CIMC(152), Jiuzhou Tong(181), Transhua(191), 허베이 물류 그룹(298), 만방(347), YTO(350), 중국 철도 컨테이너(404), HUIDATONG(415), RUIMATONG(465)

中-라오스 철로, 수출입 화물 운송량 1천500만t 돌파

중국-라오스 철로를 이용한 경제무역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윈난(雲南)성 쿤밍(昆明) 해관(세관)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중국-라오스 철로가 개통된 후 이달 19일까지 중국-라오스 철로를 통해 운송된 수출입 화물 규모는 1천500만t(톤) 돌파, 화물 가치는 653억 위안(약 12조7천988억원)을 상회했다.

올 1~8월 중국-라오스 철로를 통해 수출입된 화물 규모와 가치는 각각 376만2천t, 177억8천만 위안(3조4천8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43.7%씩 확대됐다. 그중 수출입 농산품은 58억4천만 위안(1조1천446억원)으로 52.1% 급증했다.

중국-라오스 철로의 운송 능력이 꾸준히 향상됨에 따라 국제 화물운송 및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중 수입은 금속 광석, 과일, 곡물 등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 기계 및 전기 제품, 과일 및 채소, 생활용품 등이다. 중국-라오스 철로의 크로스보더 운송 품목도 계속 확장돼 이미 3천600여 종에 이르며 크로스보더 화물운송 범위는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 19개 국가와 지역으로 확대됐다.

TIANJIN, CHINA

천진시 물류동향

항공 물류

- KJ: TSN-ICN 구간 +300KG건 10 SHIPMENTS/MONTH 이상 경우, +300KG건 들에 REFUND 가능
- 최근 천진에 자주 비가 내리고 있어 수출/입 화물은 반드시 보호 조치를 잘 해야 함.

TSN-ICN구간 2025년 10월 스케줄:

KJ997/KJ998 X WE X ICN/TSN/ICN X B74F

ICN 1600L 1715L TSN 1915L 2200L ICN

KJ997/KJ998 X SA X ICN/TSN/ICN X B76F

ICN 1855L 2010L TSN 2140L 0025L/1 ICN

KJ977/KJ978 X TU, TH, FR, SU X ICN/TSN/ICN X B73F

ICN 0300L 0415L TSN 0515L 0800L ICN

복합운송(多式联运)

천진은 복합운송(多式联运) 데이터 연동 측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 첫 번째 도로-철도 연계 운송 시범 노선:
2025년 8월, 텐진 첫 도로-철도 연계 운송 시범 노선이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 "룽청 지원(荣程智运) + 동장(东疆) 국제 열차" 모드를 통해 네트워크 화물 플랫폼과 중歐 열차 간의 데이터 연동을 실현하여 러시아 등으로 수출되는 화물의 운송 시간을 기존보다 최소 2일 이상 단축했습니다.
- 전 과정 시각화 추적: 복합운송 종합 서비스 플랫폼은 네트워크 화물 플랫폼, 야적장, 철도, 도로 등의 데이터를 연결하여 발송에서 수화물 수령까지의 전 과정 정보 연동과 화물 실시간 추적을 실현했습니다.
- 고객은 "일회성 위탁"으로 전 과정 물류 조달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TIANJIN, CHINA

천진시 물류동향

해상 물류

- ONE 선사 동남아항 XINGANG발 MUNDRA항 및 Nhava Sheva PORT 직항으로 PVC 전문 선적
- XINGANG 발 일본 도착 지역 CK 선사, 한국도착 지역 EAS SINOKOR 등 해상 운임도 성수기가 다가 오면 해상운임 불안정한 상태
- 위해-한국 특송
 - 에어 특송-당일 발송 최소 24시간, 평균 48시간 배송완료!
 - 해운 특송-월요일 발송 목요일 한국도착! 최단시간 금요일 배송완료!
 - 해운 FCL/LCL-운송부터 통관까지! 전 중국 6개 창고!
 - 원스톱 서비스-중국에서 한국까지!

진항의 수출 항로 서비스의 뚜렷한 강점:

- 복합운송의 원활한 연계: 텐진항은 전국에 120여 개의 내륙 마케팅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40여 개의 해-철도 연계 운송 채널을 개통하여 국내 13개 성, 자치구, 직할시를 서비스하며 4대 주요口岸(포트)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합니다.
- 보고하이(渤海) 지역 내선(內線)에 대해 "녹색 채널"을 개통하고 "항로 우선, 계선 시설 우선, 작업 우선, 화물 소통 우선"이라는 "네 가지 우선" 정책을 시행하여 지선 선박의 효율적인 운항을 보장합니다.
- 지능형 녹색 항구로 효율성 제고: 텐진항은 자동화 터미널과 "지능형 제로 카본(智慧零碳)" 터미널 건설을 적극적으로推進하여 전 세계 항구 최초의 롤온롤오프(滾裝) 터미널 "제로 카본" 운영을 선도적으로 실현했습니다. 신에너지 발전 시스템 구축, 지능형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방법을 통해 "저탄소 물류"로 수출 기업이 국제 시장의 탄소 발자국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 정책 및 산업 협력: 징진지(京津冀) 협동 발전에 의거하여, 텐진항은 "베이징 연구 개발, 텐진-허베이 제조"라는 산업 협력 강점을 발휘하여 배후지企業에 완비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텐진항 그룹은 주요 자동차 기업과 화주의 물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전 과정 공급망 솔루션을 제공하여 물류 비용 절감을 지원합니다.

SHENZHEN, CHINA

선전 지점소식

크로스보더 화물 운송 채널 최적화 및 조정

선전시는 선전-홍콩 육로 국경검문소 기능 배치를 추가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Shenzhen Port Office of the Municipal People's Government 공문에 따르면, Huanggang Port은 2025년 내에 크로스보더 화물 통관 기능을 중단할 예정이며, 크로스보더 화물 차량은 Shenzhen Bay Port 과 Liantang Port으로 분류되어 "동진동출, 서진서출" 전략 배치를 이행하고 운송 효율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기업 대응:**
크로스보더 운송 기업은 점진적으로 차량 승인 및 통행 경로를 조정하고, Shenzhen Bay Port 과 Liantang Port 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통관해야 합니다.
- **특별 주의:**
특정 화물을 운송하는 크로스보더 트럭은 Shenzhen Bay Port 통행만 허용되며, 구체적인 통행 시간 및 임시 통행 허가 처리 요건은 관련 공고를 따라야 합니다.

해운 시장 안정적 성장, 신규 항로 지속적 증가

선전항은 전 세계적으로 선두적인 컨테이너 처리량을 유지하면서 항로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선기 참고:**
선전 엔텐항에서 미국 롱비치까지 선박 항로를 예로 들면, 9월부터 10월 초까지 기본적으로 주 1회 운항 빈도를 유지하며, 해상 소요 기간은 약 15일입니다. 구체적인 선기는 다음 표를 참고바랍니다.

기항지	종항지	서류 마감 시간	예정 출항일	예정 도착일
엔텐 (YANTIAN)	롱비치 (LONG BEACH)	2025/9/27 (금)	2025/10/2	2025/10/17
엔텐 (YANTIAN)	롱비치 (LONG BEACH)	2025/10/4 (금)	2025/10/9	2025/10/24

- **항로 네트워크 확장:**
선전항은 이미 270개의 대외 무역 컨테이너 정기 항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 항로 지역을 포함합니다. 엔텐항구에 신설된 남미 및 중동 직항 항로는 선전이 화남 지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의 중요한 허브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SHENZHEN, CHINA

선전 지점소식

항공 운송 및 신흥 물류 업태의 혁신적 발전

선전은 공항 허브 기능 강화와 다양화된 물류 모델 탐구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 **공항 화물 운송 고도화:**

선전 공항은 화물 운송 고도화 전략을 시행하여 국제 화물 처리량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국제 및 지역 화물 우편 처리량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으며, 전자 부품, 바이오 의약 등 고부가가치 화물이 주요 물량원으로 부상했습니다.

- **"저공 + 물류" 탐구:**

선전시가 발표한 《현대 물류업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업무 방안》에 따르면, 선전은 저공 경제 기업이 "공지 연계" 물류 운송 모델 발전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원하며, 2025년까지 물류 운송 이착륙 지점 규모가 420개를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 **10월 성수기 추가 요금 주의:**

특히 주의 할 점은 전통적인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성수기 (예: 연말 쇼핑 시즌 대비)가 일반적으로 9월부터 12월 까지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 항공사는 성수기 추가 요금을 부과하여 운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월 가격 변동 사항을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에 미리 확인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 **포장 최적화로 비용 절감:**

운임은 화물의 실제 중량과 부피 중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선적 전 포장을 최적화하여 포장 부피가 커져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피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SHENZHEN, CHINA

선전 지점 서비스

1. DOOR TO DOOR 내륙 국경 운송 서비스 (태국/베트남/ 키르기즈스탄 등...)
2. 중-유럽 철도 화물 서비스
3. DG 화물 서비스
4. 동남아 특수컨테이너 서비스 (OT/FR/RF)
5. Bonded warehouse 서비스
 - 보세 운송 및 Storage
 - 명의 대행 수출/입 통관
 - C/L 라벨링 작업, Repacking 작업 Trucking, Loading/Unloading



SHENZHEN, CHINA

항공 서비스

Route : SZX → ICN

AIRLINE	FLIGHT	ETD	ETA	TYPE	
CZ	CZ3089	8:40	13:40	A320-251N	passenger plane
ZH	ZH633	9:05	13:50	737-87L	
	ZH631	11:05	15:40	A320-251N	
KE	KE828	12:45	16:40	A330-323	
OZ	OZ372	13:50	18:05	A330-323	cargo aircraft
UPS	5X0196	03:31	08:06	B767F	

해상 서비스

Route : SHENZHEN → BUSAN/INCHEON

POL	POD	Carrier	SKDL
SHEKOU	BUSAN	KMTC	Week 7~10 Voyage
		HEUNG-A	Week 4~5Voyage
		PAN OCEAN	Week 2~3Voyage
		CK LINE	Week 2Voyage
		SITC	Week 3Voyage

POL	POD	Carrier	SKDL per Week
SHEKOU	INCHEON	KMTC	Week 6~7 Voyage
		HEUNG-A	Week 3 Voyage
		PAN OCEAN	Week 3 Voyage
		CK LINE	Week 3 Voyage
		SITC	Week 2Voyage

SINGAPORE

싱가포르 지점소식

- 10월 휴일: 10/20(MON) Deepavali

항공 : 여객기 콘솔 서비스 + 화물기 서비스

- Route : SIN → ICN
- OZ 여객기 DAILY CONSOL SERVICE 운영
- KJ 화물기 장비, 벌크 화물 전문 서비스 운영

Flight No.	ETD	ETA	Frequency	Route	Remark
OZ752 (PAX)	22:50	06:40	Daily	DIR	- GCR Only / Height Limit: 160cm
KJ (FRT)	11:20	18:50	3, 5, 7	DIR	- 장비, 벌크 화물

물류 동향

항공 : 9월말부터 항공 수요 증가에 따른 스페이스 부족, 운임 인상

Data Series	2025 Jul	2025 Jun	2025 May	2025 Apr	2025 Mar	2025 Feb	2025 Jan
Total Air Cargo Tonnage (Tonne)	179,512	172,680	176,032	167,499	177,401	143,108	159,763
Imports Of Air Cargo Tonnage (Tonne)	97,725	92,693	95,597	89,506	96,886	77,306	87,112
Exports Of Air Cargo Tonnage (Tonne)	81,788	79,987	80,435	77,993	80,514	65,802	72,651
Total Direct Tonnage (Tonne)	111,617	104,864	105,920	101,019	107,448	87,822	95,309
Imports Of Direct Tonnage (Tonne)	64,350	59,684	60,988	56,796	62,300	49,714	55,008
Exports Of Direct Tonnage (Tonne)	47,266	45,180	44,931	44,224	45,148	38,108	40,301
Total Transshipment Tonnage (Tonne)	67,896	67,816	70,112	66,480	69,953	55,286	64,454
Imports Of Transshipment Tonnage (Tonne)	33,374	33,009	34,609	32,710	34,587	27,592	32,104
Exports Of Transshipment Tonnage (Tonne)	34,521	34,808	35,504	33,769	35,366	27,694	32,350

해상 : 부두 혼잡에 따른 출/도착 지연 中 (3-5일)

Data Series	2025 Aug	2025 Jul	2025 Jun	2025 May	2025 Apr	2025 Mar	2025 Feb	2025 Jan
Vessel Arrivals (Number)	11,182	11,242	10,841	11,338	10,558	10,662	9,660	10,695
Vessel Arrivals - Shipping Tonnage	277,059	281,541	262,837	275,645	260,852	258,091	227,235	269,555
Total Cargo (Thousand Tonnes)	52,584.5	54,462.7	49,908.5	52,855.5	49,776.9	52,361.6	46,880.7	48,889.7
Cargo (General) (Thousand Tonnes)	34,235.1	34,004.7	32,739.8	34,587.3	32,984	33,694.4	29,676.3	32,014.9
Cargo (Bulk) (Thousand Tonnes)	18,349.4	20,458	17,168.7	18,268.2	16,792.9	18,667.3	17,204.4	16,874.9
Cargo (Oil-In-Bulk) (Thousand Tonnes)	14,989.9	18,180.3	14,648.7	15,574.5	14,229.5	15,949.3	14,633.9	14,459.2
Cargo (General & Non-Oil In Bulk) (Thousand Tonnes)	37,594.6	36,282.4	35,259.8	37,281	35,547.4	36,412.3	32,246.8	34,430.6
Total Container Throughput (Thousand TEU)	3,864.9	3,866.9	3,708.9	3,829.1	3,628.1	3,735.8	3,316.6	3,496.9



HANOI, VIETNAM

하노이 지점소식

- 2025년 10월 공휴일 없음

경제 동향 및 전망

하노이 제2의 수도공항 자빈 신공항 개발사업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베트남 정부가 추진 중인 자빈 신공항 개발사업과 관련해 협력방안을 논의
- 공사는 지난 17일 본사 회의실에서 베트남 정부 관계자와 ‘자빈 신공항 개발사업 협력회의’를 열고 국제입찰 참여 의지를 공식화
- 공사는 세계적 공항 건설·운영 노하우와 국제무대에서 입증된 서비스 역량, 공항경제권 개발 경험, 해외공항사업 수행 경험 등을 접목해 제2수도공항이 될 자빈 신공항을 베트남 북부의 새로운 항공·경제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
- 자빈 신공항 개발사업은 수용 한계를 초과한 하노이 노이바이공항을 대체하기 위한 국가 전략사업으로, 2027년 말 1단계(연 1500만명 수용) 준공, 2030년까지 2단계(연 3000만명 수용) 완공을 목표
- 2027년 건설사업 완료 시점에 맞춰 신공항 개항을 지원하고자 ‘컨설팅·운영사업’ 국제입찰을 준비중
- 해당 사업은 총 12년(컨설팅 2년, 위탁운영 10년) 동안 진행되며 ▲건설·개항 준비 단계의 운용 개념서(CONOPS) 개발 ▲상업전략 수립 ▲신공항 운영준비(ORAT) 지원 ▲터미널 운영·유지보수(O&M) 등이 주요 과업에 포함



2025년 10월호



HO CHI MINH, VIETNAM

호치민 지점소식

- 9월말 호치민 지점 이전예정, 현 위치에서 바로 옆으로 이전 관계로 전번 및 팩스 번호 등 기존과 동일
- 주소는 조금 변경될 예정, 추후 전체 공지 예정

경제 동향 및 전망

항공

- 아시아나 여객기 8월말부터 아시아나 9월14일까지 narrow body, 15 부터 현재까지 wide 로 다시 변경 되어, cargo 화물 서비스 진행중
- 대한 항공/아시아나/베트남 에어등 운임 큰 변동 없음 호치민발 한국 및 제 3세계 항공운임은 큰 변동 이 없음

해상

- 호치민 PORT CONGESTION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대략 3 ~ 5일정도 delay 지속
- 운임은 호치민발 한국착 및 미주착 등 전체적으로 큰 변동 없음



HO CHI MINH, VIETNAM

경제 동향 및 전망

베트남 신생 항공사 ‘썬푸꾸옥항공’, 11월 첫 운항…내달 중 항공권 판매 썬그룹 항공 자회사, 푸꾸옥 중심 국내선 운항...내년부터 국제선 확장 추진

베트남 신생 항공사인 썬푸꾸옥항공(Sun Phu Quoc Airways)이 오는 11월 첫 상업 운항에 나선다.

썬푸꾸옥항공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운항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동사는 내달 중순부터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권 판매에 나설 계획이나, 운항 노선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썬푸꾸옥항공 관계자는 “당사는 초기 하노이-호치민 일 8회, 하노이-푸꾸옥 5회, 호치민-푸꾸옥 8회, 하노이-다낭 3회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푸꾸옥과 한국, 중국, 싱가포르를 잇는 국제선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사는 11월 첫 운항을 앞두고 A321 3대를 도입한 상태로, 연말까지 여객기 4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선 확장 계획에 따라 내년 여객기 8대를 추가할 계획으로, 나아가 2030년까지 보유 항공기를 31대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썬푸꾸옥항공은 지난 5월 부동산 대기업 중 하나인 썬그룹(Sun Group)이 설립한 베트남 7번째 국적 항공사로, 지난 6월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며 상업 운항에 한걸음 더 다가간 상태다. 현재 썬푸꾸옥항공은 항공기 운항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항공운항증명(AOC) 발급만을 남겨놓고 있다.

썬그룹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베트남 항공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던 시기 항공사를 설립했다. 상반기 베트남 전국 공항 이용객 수는 413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7월 기준 국제선 입국 여객 수는 누적 1220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3%, 2019년 동기 대비 25% 증가해 이미 코로나 이전을 크게 상회했다.

시장이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인 것과 달리, 국내선 여객 시장은 베트남항공(종목코드 HVN)과 비엠펙항공(종목코드 VJC)으로 양분된 상태로 이용객들의 선택지도 크게 제한된 상황이다.

업계 3위 항공사인 뱀부항공(Bamboo Airways)의 부진 이후 베트남항공은 FSC 부문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비엠펙항공은 퍼시픽항공(Pacific Airlines)가 재정난으로 임차기를 모두 반환한 이후 LCC 부문을 사실상 완전히 장악해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썬푸꾸옥 CEO는 지난달 초 행사에서 “당사는 모든 승객에게 비행 전과 비행 중, 비행 후 완벽하고 원활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해외 진출에 앞서 베트남 항공 시장에 더 많은 양질의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며 경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TAIWAN

대만 지점소식

- 10월 06일: 추석
- 10월 10일: 대만 국경일
- 10월 24일: 대만 독립 기념일

경제 동향 및 전망

전반적 현황

2025년 GDP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됨

통계청 등 공식 기관에서는 4.45% 성장 전망. 수출 성장률도 크게 업그레이드됨. 원래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

주요 동력 (성장요인):

AI 및 반도체 수요가 매우 강함. 고성능 반도체, AI 하드웨어에 대한 글로벌 수요 덕분에 수출이 확대됨

전략 산업 강화 계획:

대만 정부는 AI 인프라 프로젝트, 신뢰 가능한(혹은 신뢰할 만한) 산업(trustworthy industries) 육성, 기술 투자 확대 등에 주력 중

방위 예산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방위비 지출이 GDP 대비 비중에서도, 절대액에서도 크게 증가할 예정임

리스크 및 과제

글로벌 무역환경 불확실성:

미국 관세 정책, 특히 대만 제품에 대한 관세 가능성이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소비 회복 약함:

내수가 강하게 회복되는 모습은 아직 미미함. 구매 등이 소비자 지출에서 약한 모습.

대만-중국 관계 및 지역 리스크:

지정학적 긴장이 수출, 외자 유치, 산업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기반 산업의 경쟁과 기술 이전 이슈:

반도체 중심 산업이 핵심이지만, 기술 보호 및 글로벌 경쟁 압력도 큼.

TAIWAN

경제 동향 및 전향

1. '26년 노선 예상 사항

운항 여객기: KE, OZ, CI, BR Daily 2편 운항, LJ / Daily 한편, SQ 주 4편

9/1 부터: IT 항공 TPE-ICN 운항, Flight Type: A320 IT602 ETD:2000 ETA:2330

7/1 부터 Fedex 직항 화물기 운항

2. '26년 노선 예측 (운임 위주)

승객기 벨리 화물 과 전용 화물 병행 운영, TPE-ICN 수출 구간 공급 증가 Space 수유 보합세 반면 ICN-TPE 구간은 쿠팡 등 이커머스 물동량 증가로 Space 공급 부족현상

TPE-ICN 항공운임은 이미 최저가 수준. 2026년 상반기 까지는 운임 변동 없을것로 판단

3. 시장내 해당 노선 공급 상황 / 특이사항

1) 2025년 7월 부터 Fedex 대만 <_> 한국 연결하는 첫직항 화물 노선을 주 7회 운영

2) 대만 공항 인프라 확충 지연, 제3터미널 완공이 2026년으로 지연된 상황

3) 환적 (Trans-shipment) 물동량 증가

TPE-ICN - 중국, 미주, 유럽으로 항공 물량 증가, 대한항공인 경우, TPE-ICN-미주향 환적 화물 증기러 TPE-ICN 본 물량 Booking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

4. 시장내 수요 관련 특이사항 및 전자상거래/대기업 물량 등 물량 정보

2025 성장세 5~6%를 이어 2026년에는 9~8% 증가 예상, 특히 전자, IT 수출 및 이커머스 물동량 증가세

2025년 5월, 대만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38.6% 증가해 517억 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특히 전자 부품은 28.4%, 반도체는 30.1% 증가하며 AI 수요가 수출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5. 해상 지연 형상 여전히 심각 수준, 한국향 해상 스케줄 1주일 정도 지연

BANGKOK, THAILAND

방콕 지점소식

- 휴일 안내 : 13일 (King Rama 9 Pass Away Day) / 23일 (Chulalongkorn Day)
- 인사 : 구수모 대리(CS) 9월 8일부 입사 완료

물류 동향 - 항공

항공 화물 디지털 플랫폼 구축 계획 (THAILAND POST + AOT)

협약의 목적

- 태국 우체국(Thailand Post)과 태국 공항공사(AOT)가 공동으로 MOU 체결함
- 수출입화물 시스템을 연결하는 중앙 전자 플랫폼(ACS) 을 연구 및 개발 예정

플랫폼의 구성요소 및 기능

- 플랫폼이 연결할 참여자들: 수출업자, 수입업자, 항공사, 지상 조업 서비스 업체, 화물 포워더, 통관 중개업자, 관련 기관 등
- 기술 기능/혁신: 트럭 슬롯 관리, 스마트 백홀 트럭 시스템, 물품 결합, 실시간 상태 추적. API 데이터 연계

효과 및 기대점

- 물류 정보 시스템 관리 효율성 향상, 중복 작업 축소
- 운송비용 절감,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 감축(친환경 물류) 가능성
- 수출입 사업의 성장 지원, 태국을 아세안 지역의 항공 화물 허브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

세부 고려사항

- 온도 제어 냉장 화물도 고려됨, 특히 농산물 등 온도 민감 품목에 유용함
- 디지털 기술, 환경 지속가능성, 운송 효율성, 협업 파트너 간 데이터 공유 등이 중요한 요소

air market reviews & updates

한국착 스페이스 현황 및 운임 전망

- 여객기 : 화물기 물량 증가 및 작년 대비 부족한 편수가 스페이스 상황을 타이트하게 만듦
- 화물기 : 방콕발 미주착 물량 증가로 KE의 경우 10월까지 풀부킹 될 정도로 타항공사 및 여객기로 물량 이전되면 서 스페이스가 타이트 한 상황
- TG (타이항공): Daily 부킹이 가능하며, 주로 냉장/냉동(Perishable) 화물위주로 진행
- 방콕발 한국착 10월 추석 전 선물용 일부 망고 선적이 9월 중순/말순으로 진행되어 일시적인 스페이스 과부하가 있을 수도 있으나 한국내 과일 시장 경기 악화로 예측이 어려움

BANGKOK, THAILAND

물류 동향 - 해상(수출)

태국의 랜드브릿지(Land Bridge) 프로젝트

프로젝트 개요 및 목적

- OTP (Office of Transport and Traffic Policy and Planning)가 2026년에 민간 부문 참여자를 대상으로 태국 남부의 춘펀과 라농 항구를 연결하는 랜드브릿지 사업의 입찰을 시작할 예정임
- 투자 규모는 약 9,976.8억 바트
- 1단계 운영 개시 목표는 2030년

사업 구성 요소 및 재정 구조

- 프로젝트 구성: 추므폰 및 라농 항구 건설, 항구 측 Single Rail Transfer Operator (SRTTO) 구축, 표준 궤도 (1.435미터) 철도 건설, 간선 고속도로, 항구 양측의 상업/다목적 개발 등이 포함
- PPP (민관협력사업) 형태로 50년간의 컨세션이 예정됨. 건설 및 관리 운영을 전담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함

행정 절차 및 일정

- 현재 타당성 조사, 예비 설계, 환경 영향 평가, 사업 개발 모델 등이 진행됨. 세미나도 여러 차례 개최됨
- 입찰 조건서(TOR)는 5~6개월 소요 예정
- 2025년 10월에 내각에 제출, 이후 의회(parliament)의 심의 대상이 될 예정

기대 효과 & 유의 사항

- 전략적 위치를 활용해 태국을 해상 운송 대체 루트구축 → 무역 경쟁력 강화 목적
- 투자자 및 기업들의 관심: 국내외 여러 투자자 및 터미널/선사/물류 기업 등이 참여 의사를 표시함
- 유의점: 토지 보상, 지역 사회 영향, 환경 영향, 법적·행정적 규정 등이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ocean market reviews & updates

아시아 및 미주 지역 운임 현황

- 미주척 해상 운임은 9월 초 인하 추세를 보이다 현재는 유지되는 경향을 보임
- 한국척 운임 역시 비수기로 인해 FAK 운임 대비 떨어지는 경향을 보임
- 중국 쪽 기상 악화 등으로 선박의 잦은 딜레이 발생으로 기존 ETD/ETA 대비 3-5일간 차이 발생중

국경지대 나라들과 긴장으로 인한 물류 운송 여파

- 현재 미얀마의 국경지대 세관 담당자 변경 후 상황이 개선 되는 추이를 보이지만 추가 비용 발생 및 스케줄 지연은 지속적으로 발생 중에 있음
- 캄보디아 국경 문제로 내륙 운송이 어려워 지며 항공기(전세기 등) 통한 물류 진행 흐름

BANGKOK, THAILAND

물류 동향 - 해상(수입)

값싼 중국산 수입제, 태국 경제를 위협한다



빠르게 떨어지는 물가

- 태국은 아직 디플레이션(전반적 물가 하락) 상태는 아니지만, **8월 소비자 물가 지수(headline inflation)**가 -0.79%로 떨어지면서 물가상승률이 연속 5개월 하락 중.
- 특히 핵심 물가(core inflation)는 약 0.8%, 수요 부진(weak demand)과 중국산 수입품 유입이 영향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이 지역 기업에 미치는 압박

- Krungthai Bank(크룽타이 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저렴한 중국산 상품들이 태국 내수 시장과 수출 시장 양쪽에 서 태국 기업들에게 경쟁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이것이 태국 기업들의 이익과 시장 점유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경제 성장 둔화 및 가계 및 중소기업 부채 증가

- 물가 상승률 하락, 수요 약화, 중국산 수입 증가 등으로 국내 경제가 둔화 중이라는 분석
- 특히, 가계(household) 및 중소기업(SME)의 부채가 높다는 점에서 금융 및 정책 리스크 존재

정책적 제언 및 장기 과제

- 정부와 태국 중앙은행(Bank of Thailand)이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 예: 중국산 수입 규제, 국내 산업 보호 조치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가계 소득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조언

ocean market reviews & updates

- 중국산 제품의 유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상표권이 없이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한 관리 및 제제가 강화
- 제품이 상표권이 없는 경우 물품 압류 및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 유의할 필요
- B2B/B2C 제품 유입이 늘어나면서 수입자 대행 및 보세 운송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
- 경기 둔화로 투자심리가 줄어들면서 수입자 대행 서비스 요청 및 전시회 등을 위한 보세운송 요청 증가
- 태국 지점은 다수의 수입자 대행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고객사에 제공 중에 있음

BANGKOK, THAILAND

물류 동향 - 사회/경제

IMF, 태국에 부채 한도 60% 복원 권고

부채 상한선 제안

- IMF는 태국이 공공 부채비율을 ****중기적(medium term)****으로 60% 수준으로 낮추고, 부채 상한선을 60%로 재설정할 것을 권고함
- 현재 태국의 공공부채는 GDP 대비 64.49% 수준이며, 법적 상한선은 70%

이유 및 배경

- 팬데믹 시기에 긴급 지출을 위해 상한선이 60%에서 70%로 임시 인상됨
- 그러나 이후 성장 둔화, 세수 부족(특히 관광 수입 감소 등), 정부 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 공간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 비예산 차입 및 국영기업 통괄 운영이 재정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리스크를 키우고 있음

상황 및 우려

- 공공부채가 법적 상한선(70%)에 근접함. 현재는 법적 한도 안에 있지만, 추세가 계속되면 상한선을 조속히 도달할 가능성 있음 2024년 교역액: 1,740억 바트(약 39억 달러)
- 신용 등급 평가 기관들이 이 추세를 주시 중이며, 등급 하향의 위험이 존재함

제안된 개혁 및 권고사항

정부는 재정 개혁(fiscal reform)을 해야 한다고 제안됨. 구체적 내용은 하기와 같음

1. 수입구조 조정 (세제 개혁, 새로운 소득원 확보 등)
2. 지출의 효율성 강화 및 복지 정책을 더 타겟화된 방식으로 조정
3. 공공 부문(public sector) 개혁,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
4. 국가의 재정 보고 투명성 강화, 비예산 채무 감시 강화

PENANG, MALAYSIA

페낭 지점소식

- 2025년 10월 20일: 힌두축제 (Diwali Day)

바운드별 스케줄

9월 말 KE Schedule

Temporary & Changeable

출발지	도착지	화				수				목			
		8월26일				8월27일				8월28일			
PEN	ICN	14:30	21:45	74Y	Freighter	8:20	18:40	77X	Freighter	12:40	19:40	77X	Freighter
KUL	ICN	23:20	07:05+1	333	Passenger	8:55	16:15	74Y	Freighter	23:20	07:05+1	333	Passenger
						23:20	07:05+1	333	Passenger				
출발지	도착지	금				토				일			
		8월29일				8월30일				8월31일			
PEN	ICN	14:30	21:45	74Y	Freighter	10:15	17:20	74Y	Freighter	10:50	18:05	77X	Freighter
KUL	ICN	8:15	18:45	77X	Freighter	23:20	07:05+1	333	Passenger	23:20	07:05+1	333	Passenger
		23:20	07:05+1	333	Passenger								

- PEN-ICN 구간: 기존 주5회에서 6월달부터 주 6회증편이후 변동없이 지속
- KUL-ICN 구간: 기존 여객기 Daily, 화물기 주 2회로 변동없이 지속 중

PENANG, MALAYSIA

물류 동향

MMC 포트, 말레이시아에서 대규모 IPO 승인 획득

- 말레이시아 최대 항만 운영업체 MMC 포트 홀딩스가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로부터 1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가 될 수 있는 주요 시장 상장 승인을 획득.
- 2006년에 설립된 MMC 항만은 환적 및 게이트웨이 화물을 위한 말레이시아의 선도적인 컨테이너 허브로 성장. 2023년 자본 조정 처리량으로 측정한 동남아시아 최대 민간 소유 항만 운영업체이자 글로벌 민간 터미널 운영업체 중 5위를 차지.
- MMC포트 홀딩스는 멜라카의 탄중 브루아스 항구와 함께 탄중 펠레파스 항구, 조호르 항구, 노스포트, 페낭 항구 등 컨테이너 처리량 기준으로 국내 5대 항구 중 4곳이 포함. 이 중 2곳은 동남아시아 상위 7개 항구 중 하나.

중국-말레이시아 "에어 실크로드" 파트너십은 지역 통합을 강화

-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KLIA)과 정저우 신정 국제공항(CGO) 간의 전략적 항공화물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을 통합하려고 노력
- 말레이시아 교통부 장관은 중국 중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물류 중심지 중 하나인 정저우와 아세안의 관문인 KLIA를 연결하면 전자상거래, 전자제품, 의약품, 신선식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Capital A Berhad의 물류 부문인 텔레포트와 중국 중앙 롱하오 항공(Air Central China)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의 항공 화물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 이번 합의가 양측 간의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 무역 통로를 따라 무역 및 항공 화물 연결성을 강화한다는 비전을 뒷받침한다고 설명. 이번 파트너십은 에어 실크로드를 강화하고 중국-아세안 무역의 성장을 지원하며, 화물 이동을 간소화하고 주요 노선의 운송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

PENANG, MALAYSIA

경제 동향

美 관세 동향 브리핑 반도체 100% 위협

- 업계는 자동화 설비와 고부가가치 특수제품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 하지만, 공급과잉과 원가 상승은 여전히 구조적 위험요인
-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100% 관세’ 위협이 불거지며, 말레이시아 반도체 수출과 FDI 유입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 다만, 미국기업 현지투자 예외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반대로 반도체 장비·검사 장비업체에는 미국 내 생산 확대에 따른 기회 요인이 있다는 평가도 존재

반도체 수출 다변화 추진

- 말레이시아 총리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수출 구조를 벗어나 중국·일본 등과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힘
- 동시에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반도체 인력 재교육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대규모 교육·훈련 투자를 병행하겠다고 강조

10월 KL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국 확대 전망

- “제47차 아세안 정상회의(10월, 쿠알라룸푸르)에 해외 정상 대거 참석 전망”,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참석 확정 언급, 中·러 지도자 참석 가능성 시사
- 다만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불참 가능성이 제기되며, 일정은 10월 26-28일로 관측

말레이시아 유류비 조정

- 9월30일부터 휘발유 내국인 RM 1.99, 외국인 RM 2.60 적용
- 말레이시아 내국인에게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RM 2.05에서 RM 1.99로 인하되지만 비시민과
- 대기업은 보조금을 받을수 없게되어 리터당 RM 2.60의 비보조금 가격을 지불해야 됨

FRANKFURT, GERMANY

프랑크푸르트 지점소식

– 10월 3일(금): 독일 통일 기념일

물류동향

항공 물류 동향

독일/유럽발 한국행 동향

9월 들어 북미 및 유럽발 극동아시아행 항공 화물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으로 향하는 항공편의 경우, 전자상거래 및 일반 화물 수요가 모두 감소하여 항공 운임이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 혼합

2025년부터 ReFuelEU 항공 규정에 따라 유럽 내 공항에서 공급되는 항공유에 최소 2%의 지속가능항공유(SAF)를 혼합해야 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항공사의 유류비 및 운임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소액면세 폐지 논의

최근 미국에서 논의되는 소액면세(de minimis) 폐지 움직임은 중국발 이커머스 물량에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에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해상 물류 동향

EU 해운 배출권거래제(ETS) 부담 증가

2025년부터 EU ETS 규정이 강화되어, EU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들은 배출량의 70%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2024년 40%에서 상향). 이는 해운사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켜 향후 운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부르크 항만 철도 운송 차질

8월부터 이어진 함부르크 항만의 철도 운송 문제는 9월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로 폐쇄와 유지보수 프로젝트로 인해 CTA 터미널에서는 약 13시간, EKOM 터미널에서는 약 6시간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ICS2 시스템 도입

EU의 새로운 수입 관리 시스템인 ICS2(Import Control System 2)가 2025년 4월부터 9월 1일 사이에 도로 및 철도 운송 회사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통관 절차의 변화를 의미하며,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라인강 수위 문제 지속

9월에도 라인강의 주요 지점인 카움(Kaub)과 코블렌츠(Coblenz)의 수위는 여전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바지선 운송량에 제한이 생겨 운송 비용이 상승하고, 대체 운송 수단인 트럭 및 철도 운송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FRANKFURT, GERMANY

경제 동향 및 전망

ZEW 경기 예측 지수 상승

9월 독일의 ZEW 경기 예측 지수는 37.3으로, 시장 예상치(26.3)와 전월(34.7) 수치를 모두 웃돌며 투자자 심리가 예상 외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특히 자동차, 화학 등 수출 중심 부문에 대한 전망이 개선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상황 지수 악화

반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는 -76.4로 하락하여 시장의 비관적인 전망(-75)보다도 낮게 나타났습니다. ZEW 회장은 "미국 관세 정책과 독일의 개혁에 대한 불확실성 등 상당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8월 인플레이션 발표

9월 12일에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여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추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기관 성장률 전망

주요 경제 연구소들은 9월 공동 보고서를 통해 2025년 독일 GDP 성장률을 0.2%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상반기까지 이어진 경기 침체가 바닥을 다진 것으로 보이며, 내수와 서비스업이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높은 에너지 및 노동 비용, 숙련 노동자 부족으로 제조업은 여전히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 재정 정책 기대감

ifo 경제 연구소는 9월 4일 발표한 추계 경제 전망에서 새 독일 정부가 계획한 인프라 및 국방 분야 투자 등 재정 정책이 경기 회복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동결 및 유로존 경제 전망

유럽중앙은행(ECB)은 9월 11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ECB는 2025년 유로존 평균 인플레이션을 2.1%로, 경제 성장률은 기존 0.9%에서 1.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독일을 포함한 유로존 전체의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며, 독일 기업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프랑스의 성장 둔화

프랑스 중앙은행은 9월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2025년 자국 GDP 성장률을 0.7%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전망치(0.6%)와 유사한 수준으로, 독일의 최대 교역 파트너 중 하나인 프랑스의 내수 둔화는 독일의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국은 9월 초 전력 시장, AI, 데이터 센터 관련 그리드 연결 문제 등 6대 핵심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여 장기적인 협력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탈리아의 안정적 성장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의 2025년 GDP 성장률을 0.7%로 전망했으며, 이는 내수, 특히 EU 경제회복기금(RRF) 관련 투자가 주도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탈리아의 9월 소비자 및 제조업 신뢰지수 역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교역국인 이탈리아 경제의 안정세는 독일의 수출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영국과의 관계 강화

7월 17일 독일과 영국이 체결한 새로운 우호·협력 조약은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영국은 2025년 1분기 기준 독일의 두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로, 양국 간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는 독일의 수출입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PARIS, FRANCE

물류동향

항공 물류 동향

- 추석연휴를 앞두고, 밀어내기 수요 급증으로 주요항공사(KE,OZ,TW등)의 화물 공급 부족 현상 발생 및 단기 운임 상승
- 대한항공 10월 부 FSC 인상 0.95/kg → 1.05/kg
- 아시아나 파리/인천 여객기 '25년 11~12월까지, 주 5회에서 주 4회로 감편 (D6편 감편)
- 티웨이 동계 스케줄 일부 노선 변경 가능성 높아, 출고 및 부킹 차질 방지를 위해 사전 스케줄 확인 필수

파리/인천 SKD

항공사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KE	여객기	✓	✓	✓	✓	✓	✓	
	화물기					✓		✓
OZ	여객기	✓		✓		✓	✓	✓
TW	여객기	✓		✓		✓	✓	✓

해상 물류 동향

First Available Vessel Schedule

PORT	VESSEL	CUT-OFF	ETD	ETA	T/T
LE HAVRE	MSC GIUSY	90CT	12-10	13-12	62 DAYS
FOS SUR MER	ONE FORTUNE	80CT	11-10	30-11	50 DAYS

MSC DIRECT → T/S 전환 사례 및 YML 대응 현황

- 최근 MSC 모선의 FE6 서비스 이용 시, DIRECT 스케줄로 출항 후 T/S로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이에 따라 YML 선사의 경우, FRLEH-KRPUS 노선을 일정 변동이 적은 FE4 서비스(T/S)로 예약 진행 중

컨테이너 장비 및 내륙 운송 현황

- 10월 RF 장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CUT-OFF 최소 2주 전 모선 예약 필요
- 내륙 운송 정상 진행 가능

서울 영업팀

sales.kr@maxlogis.com

김민호 이사	mike.kim@maxlogis.com	010-2988-6309	070-5096-9367
김희명 팀장	hmkim@maxlogis.com	010-9281-0109	070-5096-9389
장명수 수석	simon.jang@maxlogis.com	010-4437-5175	070-5096-9387
이진섭 매니저	david.lee@maxlogis.com	010-8969-7433	070-5096-9472

부산 영업팀

bus@maxlogis.com

최승린 지점장	steve.choi@maxlogis.com	010-8619-5761	070-5096-0585
박지선 매니저	amy.park@maxlogis.com	010-2825-2252	070-5096-0582

